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예감

입장권 1차 56만매 판매 … 목표 142% 달성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예매가 당초 계획보다 초과해 박람회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2일 "지난해 10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정원박람회 입장권 예매를 실시한 결과 142%의 예매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목표관람객수 400만명 중 유료관람객수를 342만명으로 예상하고, 박람회 개장 전까지 사전예매를 실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한 결과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직위는 개장 초반부터 단체관람객 유치 등이 박람회 흥행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입장권 사전예매 목표를 80만매로 설정했다.

조직위는 지난해 12월31일까지 1차적으로 40만매 , 올 1월1일부터 4월12일까지 2차 예매목표 40만매로 정하고, 전국 공공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전국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12월31일까지 56만7000매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4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순천만 일원에서 열린다 정원박람회 입장권을 구매하면 관내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등 4개소를 무료입장할 수 있고 송광사, 선암사, 그리고 도내 주요관광지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편 입장권 구입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홈페이지(www.2013expo.or.kr)와 인터파크 홈페이지(ticket.interpark.com) 광주은행, 하나은행 전국지점, 시청 민원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4월12일까지는 1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예매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동부 해상오염 배출량 79% 줄어

사고건수도 19%나 감소

전남 동부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오염사고 건수와 유출량이 크게 감소했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 광양, 고흥 등 전남동부 바다에서 모두 29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해 1036kℓ의 기름과 폐수, 0.06kℓ의 유해액체 물질, 0.3t의 폐기물이 바다로 유출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총 36건의 오염사고로 2838kℓ의 기름과 폐수, 0.01kℓ의 유해액체물질, 4.0t의 폐기물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19.4%, 유출량은 79.3%가 줄어든 것이다.

유출오염물질은 경유 0.55kℓ, 중유 0.33kℓ, 기타유 0.10kℓ, 유해액체물질 0.06kℓ, 선저폐수 0.04kℓ, 각종 폐기물 0.34t 등이었다.

사고원인은 유류이송 등 작업부주의에 인한 사고 18건, 좌초·전복 등 해난사고 5건, 파손 4건, 고의 배출 2건 등이었다.

배출원은 어선 7척, 화물선 4척, 유조선 3척, 예인선 및 부선 8척, 기타선 5척 등이었고 육상시설도 2건으로 집계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이동빨래방 서비스 운영

구례군, 소외계층 큰 도움

구례군은 6일 "올해부터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빨래방은 대형세탁기가 장착된 1.2t트럭이 어려운 이웃의 집으로 찾아가 빨랫감을 거둬들여 즉석에서 세탁, 건조까지 해주는 원스톱서비스다.

서비스 방법은 군이 정한 읍·면 지역 176가구를 대상으로 이동빨래방 사업 위탁기관인 구례군건강지원센터 요원 4명이 매일 3~4가구를 방문해 제공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동빨래방 서비스는 혼자 사는 노인, 중증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기자 lk5826@

■ 새얼굴

"수용자 교정교화 최선 다할것"

구지서 순천교도소장

"공정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엄정한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구지서(50)순천교도소장은 "아직도 가끔씩 교도소내에서 부당한 거래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한 교도행정으로 이를 불식시키고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을 만들고,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 가정과 국민에게 인정받는 교정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신임 구지서 소장은 전주 출신으로 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교정간부로 입문한 뒤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을 역임했다.

/김은종기자ejkim@kwangju.co.kr

새해 새 설계

박병종 고흥군수

"도양산단 기업유치에 심혈"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고흥군을 그늘 없는 복지의 고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새해 군정의 키워드로 ▲지속 ▲대응력 ▲나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새로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지속 가능한 대응력을 높이고 주변의 이웃에게도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고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키워드 제시의 배경이다.

박 군수는 우선 새해의 고흥 살림살이를 위해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양 일반산업단지는 실수요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고흥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주항공 산업 집적화를 위해 과학 로켓센터의 국가 재정계획 반영과 국가비행시험센터·고흥 우주랜드 조성, 나로우주센터 2단계 확장사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 사업도 새해에는 본격 시험생산에 들어가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흥 덤벙분청 문화관 건립사업은 국비 확보를 통해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해창만 간척지 제2농공단지 조성 완수 우주랜드 조성 등 집중 해조류 바이오 시험생산 공원화 사업,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 마복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도 새해에는 계획대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고흥군이 지역발전 구호로 내건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목표 달성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고흥군 유통 주식회사는 산지유통 경영체로 기능을 강화하고 농수축산물 브랜드화와 지리적 표시제 등록 지속 확대, 국내외 유통망 구축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지역 정주기반 확충을 위한 고흥~여수 연륙·연도교 건설,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건설, 녹동항 정비,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영남면 금사권역 종합정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촛불화재'를 계기로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박 군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일제조사도 마무리했다"며 "긴급복지 지원, 민간복지 지원 연계,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과 자원봉사자 확충 등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이 주도하는 생활개혁 캠페인인 '참 고흥 실천운동'도 민간 주도형 운동으로 전환해 지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 군수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렸다"며 "올해에는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재무장해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실체화·구체화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 북

전주시 비빔밥 체험관 만든다

전문점 가격 인하 유도·관광객 유치

전주시가 일부 전문점들의 지나친 상술로 인해 급등한 비빔밥 가격 인하를 위해 체험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비빔밥 전문점들이 비빔밥 한 그릇 가격을 3만원 안팎으로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전주시는 6일 "옛 도청 2청사 부지에 들어서는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비빔밥 전문 음식점과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립 예산은 모두 8억원으로 1300㎡ 규모이며, 오는 6월 준공예정이다.

음식점은 200석 가량으로 다양한 비빔밥 레시피를 소개하고 각종 나물과 양념 등을 취향대로 골라 조리할 수 있는 뷔페식으로 운영된다.

뷔페식에 따른 인건비 등 절감 효과로 가격은 80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몇몇 고급 전문점이 주도하는 비빔밥 가격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체험관을 별도로 운영, 관광객 발길을 유도해 수익창출도 꾀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조리실, 영상강의실 등이 마련돼 비빔밥이나 떡, 다과 등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다. 김 신 전주시 문화경제국장은 "비빔밥 가격이 비싸 음식도시로서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며 "음식점 가격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뷔페식 비빔밥 업소를 차려 자연스레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고택 체험 인기

다산 리더십·명심보감·판소리 등 특강
동헌 등 한옥마을로 옮겨 1700명 방문

전북지역 고택(古宅)이 새로운 체험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6일 "조선시대 전주판관(현 전주시장) 집무실인 동헌과 김제시 금구면의 장현식 선생 고택 등을 전주 한옥마을로 옮겨 연수원으로 활용, 1년 동안 1700여명이 찾았다"고 밝혔다.

이 동헌은 일본강점기인 1934년 매각돼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로 옮겨졌다가 2008년에 전주시에 기부돼 한옥마을에 복원됐다. 김제 한옥은 1932년에 건립된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의 안채와 중간 채 등 2개 동으로 이뤄진 고택이다.

이들 건물을 하나로 묶어 지난해 4월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에 건립된 것이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다. 이 한옥들은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정교한 건축기술까지 갖춰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이나 간재 전우의 사상, 명심보감 등에 대한 특강, 전통예절과 관소리, 향음주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통문화연수원은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국내 첫 한옥형 컨벤션"이라며 "한옥마을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고드름이 바닥에서 자란다? 정읍시 내장산 불출봉 8부 능선의 옛 불출암자 터 옆 동굴바닥에 30cm 길이의 고드름 1개와 20cm 길이의 고드름 3개가 맺혔다. 흡사 바닥에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드름은 동굴 윗부분에서 흘러내린 가는 물줄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읍시 제공〉

부안서 해양사극 '명량 회오리바다' 촬영

초대형 해양 사극 영화가 전국 유일의 영상문화특구인 부안에서 촬영된다.

6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영화 '최종병기 활'로 740만명을 동원한 김한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명량 회오리바다'가 부안 영상문화특구에서 오는 28일부터 촬영에 들어간다.

영화는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왜선 133척을 울돌목 바다에서 혼쭐을 낸 명량대첩을 극화한 작품으로, 연기파 배우인 최민식(이순신 역)이 주연을 맡고 명품 조연연기자 류승룡, 가수 겸 영화배우 이정현 등이 출연한다.

/부안=강철수기자 knews@

481억들여 도서관 건립

전주시 2020년까지

전주시는 2020년까지 481억원을 들여 시립도서관 6개를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먼저 내년 말까지 도서관이 없는 북부권의 반월동에 전체 건물면적 1554㎡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

또 우아동과 호성동 일대 주민을 위해 2014년까지 우아동에 건물면적 15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한다.

이어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에 2015년까지 3500㎡ 규모의 대형 시립도서관을 짓는다. 2017년, 2018년, 2020년에도 화산동, 혁신도시 등에 잇따라 도서관 1개씩을 만들기로 했다.

이들 도서관이 건립되면 시립도서관은 모두 13개로 늘어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단신

'착한가격업소' 홈피 오늘 개설

전북도가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만든 '착한가격업소 전용 홈페이지(http : //jbgood-price.or.kr)'가 7일 문을 연다.

이 홈피에는 원자재 상승과 고유가 속에서도 원가절감 노력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온 식당과 미용실, 목욕탕 등 업소 354개소가 소개됐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착한가격 업소의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입소문을 내 해당 가게들이 명소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순창읍 다목적구장 전훈지 각광

순창군 순창읍내 실내 다목적구장이 겨울철 전지 훈련지로 주목받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제42회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대전중·안동중·원주중 등 14개 학교 150여명이 7일부터 다목적구장에서 전지훈련에 들어간다.

2월에는 태권도, 테니스, 사이클 종목의 성인 전지훈련도 계획돼 있다.

다목적구장과 지난해 준공한 국민체육센터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인기 비결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북경찰, 보행자 사고 예방 보호활동

전북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 보호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폭설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밝은 옷 입기 운동'을 실시하고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결빙지역을 순찰하고 보행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순찰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전주=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출산가정 방문 서비스 시행

남원시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과 건강한 출산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외래진료 대체 서비스인 가정간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정간호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전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하게 된다. 시는 출산 후 산욕기 기간(8주 이내)에 있는 출산가정 200가구를 대상으로 2회씩 방문해 서비스를 하게 된다. 간호서비스는 산모·신생아의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교육 등을 하게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